

# 보도자료

2021년 8월 2일 대전충남 2021-8-1

이자료는 2021년 8월 3일(화) 오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  
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8월 2일(월)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## 제 목 :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평가

-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조사연구 보고서 「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평가」를 작성

“자세한 내용은 (붙임) 참조”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. 본 보고서를 보도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배준호, 조사역 임미라

Tel : (042) 601-1218 E-mail : daeje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에서 지역본부-대전충남본부로 접속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

(붙임)

#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평가 - 외감기업을 중심으로 -

2021. 7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 
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 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**

작성자 :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배준호, 조사역 임미라



# 목 차

## < 요약 >

I. 검토 배경 .....	1
II.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의 기업 경영상황 ...	2
1. 충남지역 외부감사대상 기업 현황	
2.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주요 경영지표 분석	
III.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 .....	8
1. 주력산업: 비IT 제조업 크게 악화	
2. 서비스업: 대면서비스업 크게 부진	
3. 중소기업: 코로나19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간 양극화	
4. 한계기업: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비중 큰 폭 증가	
IV. 종합평가 및 전망 .....	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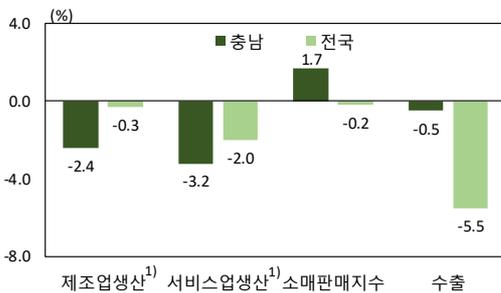
## < 참고문헌 >

## 【요약】

### 1 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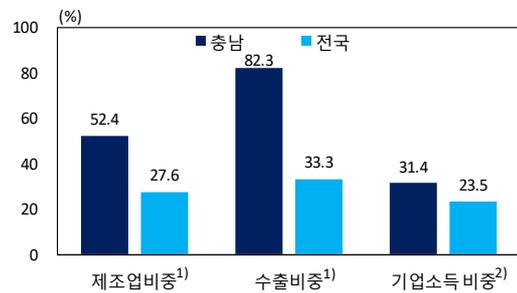
- 지난해 **충남지역**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**경제상황이 크게 악화**
  - **충남지역**은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고 주요 대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업종별로 고르게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 경제주체로서 **기업부문의 역할이 매우 큼**
  - 코로나19 위기가 지역 기업부문에 미친 충격을 분석하기 위해 **이용가능한 통계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기업부문 상황**을 가늠해 보고자 함
- ⇒ **충남지역 기업 현황 및 구조적 특징**을 살펴보고 **코로나19 위기**를 전후로 **기업 경영지표**를 비교 분석한 후, **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**의 **주요 특징**을 점검하고 **시사점**을 제시

2020년 중 충남 및 전국 경제상황



주: 광업제조업동향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준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충남지역 경제 구조



주: 1) 2019년 기준, 2) 비금융법인 총분원소득/GRNI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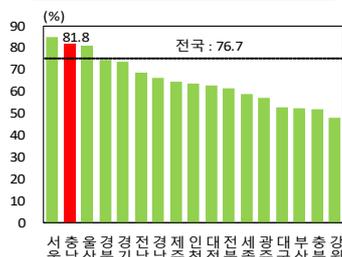
### 2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의 기업 경영상황

- ① (충남지역 외부감사대상 기업 현황) 2020년 기준 **충남지역 기업수**는 1,100개, **매출액**은 151조원으로 각각 전국의 4.2%, 5.7%를 차지
- 기업수는 **중소기업**(79.9%)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**매출액**은 **대기업**(81.8%)과 **제조업**(89.7%)에 집중
  - 충남지역 기업 매출액의 **대기업**과 **제조업 집중** 정도는 모두 **전국 최고 수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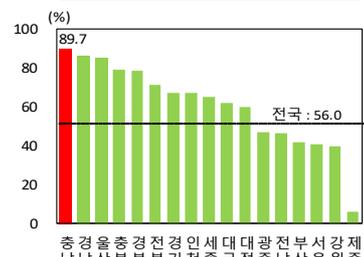


주: 1)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대기업 비중(매출액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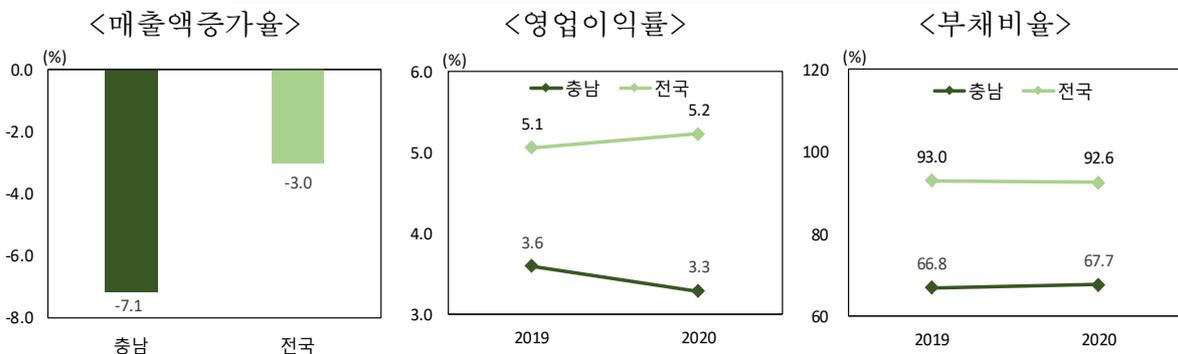
제조업 비중(매출액 기준)



② (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주요 경영지표 분석)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**충남지역 기업**의 주요 **경영지표**는 코로나19 이전(2019년)에 비해 **크게 악화**되었으며, 경영지표 **악화 정도**는 **다른 지역보다 컸음**

-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(-7.1%)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이 하락('19년 3.6% → '20년 3.3%)하고 부채비율이 상승(66.8% → 67.7%)
  - **매출액 감소폭**은 **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**(‘09년 -7.3%)이며, 이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이 예년 수준(‘16~‘19년 +6.1%)을 대폭 하회
  - 적자기업 비중 및 한계기업 비중은 각각 1.1%p, 1.0%p 증가
- 전국의 경우 매출액 감소폭(-3.0%)은 충남지역 감소폭의 절반을 하회하며 영업이익률('19년 5.1% → '20년 5.2%)과 부채비율(93.0% → 92.6%)은 코로나19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**코로나19 이후 충남 및 전국 기업 경영상황 변화**



자료: KIS-Value

**3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**

① **주력산업: 비IT 제조업 크게 악화**

- 코로나19 이후 **충남지역 기업**의 **경영상황 악화**는 주력산업 내 **비IT 제조업종**이 주도
  - IT부문 업종(반도체, 디스플레이)은 매출이 소폭(+0.8%)이나마 증가를 유지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(+1.9%p)되었으나 비IT부문 업종(석유정제, 석유화학, 자동차, 철강)에서 매출이 대폭(-9.7%) 감소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락(-1.0%p)

□ IT부문에서 디스플레이가 전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, 비IT부문에서 석유정제·화학 업종의 매출이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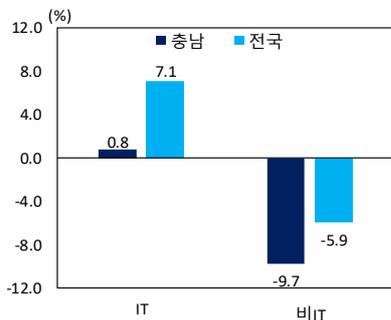
○ 디스플레이\*는 전국적인 IT부문 호황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기업의 특수요인\*\*에 주로 기인하여 소폭 증가(+0.1%)에 그쳤음

\* 디스플레이 산업은 충남지역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(21.8%)을 차지하며, IT 부문 내 비중은 92.5%로 대부분을 차지

\*\* 삼성디스플레이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사업전환(LCD → OLE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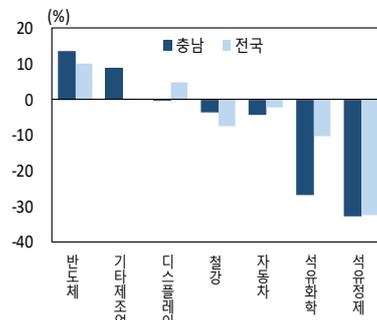
○ 석유정제(-32.8%)와 석유화학(-26.9%)은 유가 하락이 제품 가격으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가격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매출이 급감

제조업 부문별 경영상황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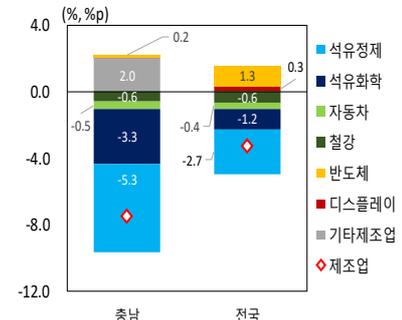
주: 1) 매출액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  
자료: KIS-Value

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기여도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## ② 서비스업: 대면서비스업 크게 부진

□ 비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한 데 비해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는 매출이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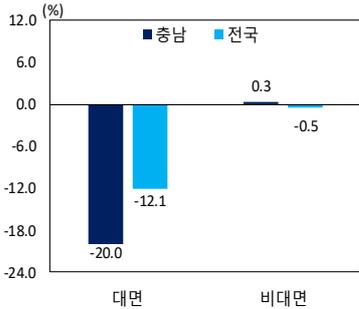
○ 대면서비스업은 2020년 매출이 코로나 이전(2019년) 대비 20.0% 감소(전국은 -12.1%)하였으며, 특히 숙박음식점업(-54.3%), 운수업(-18.5%)의 매출이 큰 폭 감소

○ 비대면서비스업은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보이고(+0.3% vs. 전국 -0.5%) 영업이익률도 소폭 상승(+0.4%p vs. 전국 +0.2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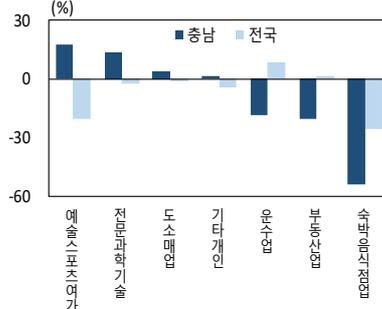
□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서비스업 매출 감소폭(-1.4%)이 전국(-2.3%)보다 작았던 것은 대면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낮은(7% vs. 전국: 14%) 구조적 특성에 기인

- 충남지역 대면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으며,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했던 운수업(3.3% vs. 전국 10.7%), 숙박음식점업(1.1% vs. 전국 2.0%)의 비중이 크게 낮은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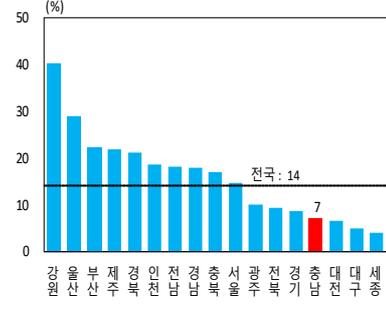
**서비스업 부문별 매출액 증가율    서비스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   대면서비스업 비중 비교**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**3] 중소기업: 코로나19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간 양극화**

- 충남지역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, 코로나 특수 수혜업종과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수요가 줄어든 피해업종 간 매출 및 수익 상황이 엇갈리며 양극화

- 수혜업종(식료품, 의료용 물질·의약품, 기계·장비, 반도체 소재 등으로 매출액 비중은 27.7%)은 매출이 13.6%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1.0%p 상승
- 반면, 피해업종(운수업, 숙박음식점업, 자동차 등으로 매출액 비중은 9.8%)은 매출이 7.1%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0.1%p 하락

- 지역 중소기업 내 비중이 높은 기계·장비, 반도체 소재, 의료용 제품, 식료품 등이 포스트 코로나 특수의 수혜를 받으며 업황이 호조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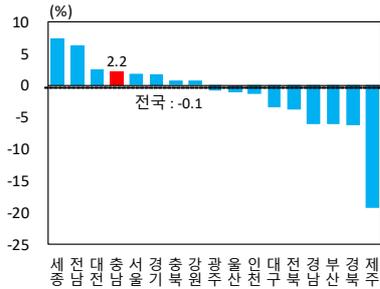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호조로 국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내 중소형 기계·장비(+17.5%) 및 소재(+9.7%) 업체들의 매출도 동반하여 크게 증가
- 의료용 물질·의약품(+13.7%), 의료·정밀·광학·시계(+3.1%), 식료품(+11.3%) 생산업체 등도 코로나19 특수의 영향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

- 반면, 대면서비스업 업종 전반과 제조업 중 자동차, 섬유, 의복제품 등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부진

- 대면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점업(-21.9%), 운수업(-18.7%)의 매출이 큰 폭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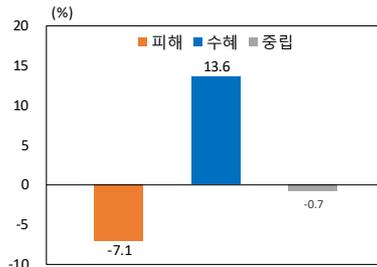
- 한편,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(-4.3%), 섬유(-13.9%), 의복제품(-44.6%)의 매출이 감소

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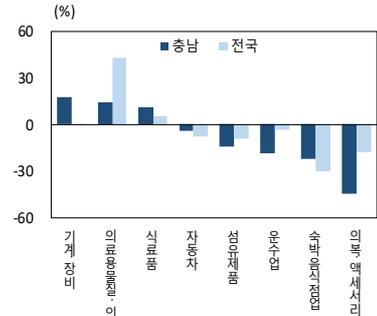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중소기업 코로나 수해 피해업종 매출액 증가율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4 한계기업: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비중 큰 폭 증가

□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업규모·업종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영상황은 부진이 더욱 심화

- 충남지역 한계기업 수가 감소('19년 147개 → '20년 140개)하였으나,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확대(11.7% → 12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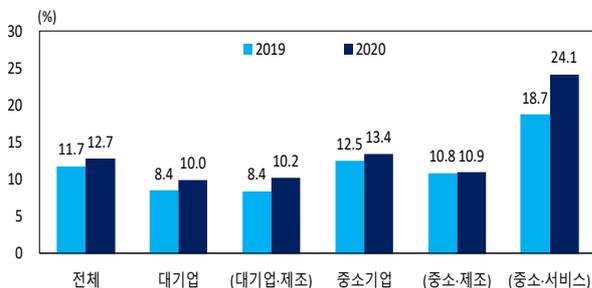
– 한계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폐업하거나 비외감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

- 한계기업은 기업당 매출액이 대폭 감소(-11.1%)한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폭 하락(-2.0%p)하고 부채비율은 큰 폭 상승(+22.0%p)

- 중소·서비스업 부문\*은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, 높았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안정성이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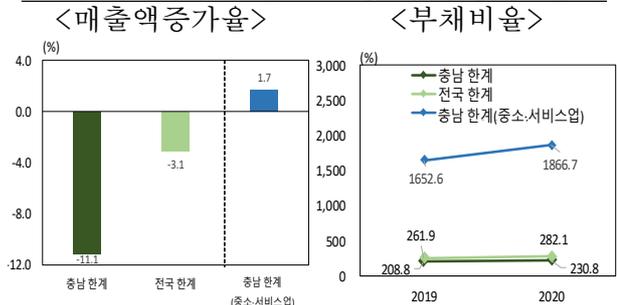
\* 기업규모와 업종을 고려할 때 한계기업 비중, 영업이익률 적자폭, 부채비율이 모두 가장 커 취약성이 가장 높은 부문

부문별 한계기업 비중 변동



자료: KIS-Value

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경영상황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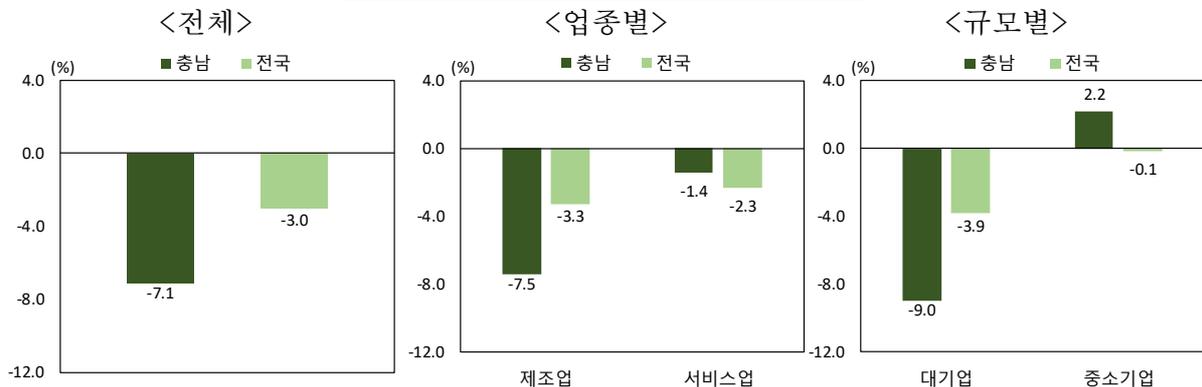


## 4 종합평가 및 전망

① **코로나19 위기의 충격으로 충남지역 기업은 주요 경영지표가 모두 크게 악화되었으며, 전국에 비해서도 크게 부진**

- 충남지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전국에 비해 부진하였던 것은 지역 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**대기업과 제조업의 경영상황**이 상대적으로 **크게 악화**된 데 기인
- 특히 주력산업 가운데 **비IT부문 제조업**(석유화학·정제, 자동차, 철강)에 속한 **일부 대기업의 경영상황 악화**가 지역 전체 기업부문의 경영상황 부진을 주도하였음

코로나19 이후 매출액 증가율 비교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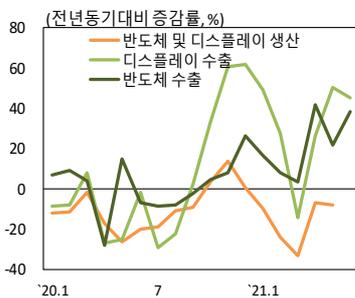
②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변화를 업종별·기업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**코로나19 이후의 기업 경영상황 악화**는 다음과 같은 **특징**이 나타남

- **서비스업**은 매출이 전국과 비슷하게 소폭 감소하였으나, **대면서비스업**의 경우 **매출이 급감**하며 **감염병 위기**에 매우 **취약**한 모습을 드러냄
- **중소기업**은 전체 기업 **매출이 소폭 증가**하고 **수익성도 다소 개선**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**포스트 코로나 특수 수혜**를 받은 **업종**과 전반적 경기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**피해업종 간 경영상황이 차별화**
- 한편, **한계기업**은 업종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**비중이 상승**하였으며, **경영지표도 더욱 악화**
  - 특히 **서비스업을 영위**하는 **중소기업** 부문은 **한계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**하며 **취약성이 심화**

③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선 **대기업·제조업이 주도하는 충남 기업부문 전체 경영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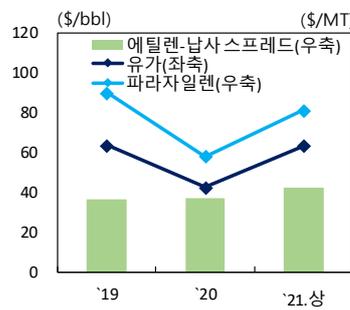
-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경제봉쇄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던 수출이 **금년 들어 큰 폭 증가**함에 따라 충남지역 기업 업황도 개선
- **향후에도** 충남지역 기업 **경영상황의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**
  - 지난해 지역 기업 경영상황 부진을 주도했던 **석유정제·화학, 철강** 업종도 **글로벌 수요회복**으로 원유, 철광석 등 **원자재 가격이 회복**됨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

**IT 생산 및 수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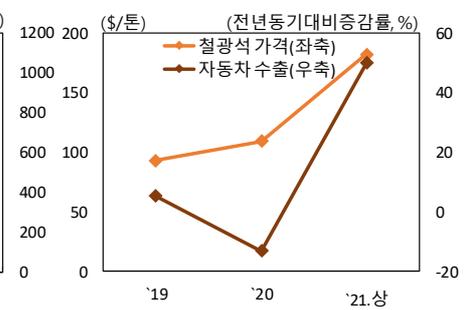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**유가 및 석유화학제품 가격 철광석 가격 및 자동차 수출**



자료: 한국석유화학협회



자료: 스틸데일리, 한국무역협회

④ 다만 기업부문 전체 경영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**코로나19 전개 상황**에 따라서는 대면서비스업 등 **코로나 피해업종**의 **경영상황 부진**이 지속되고 취약부문인 **중소서비스업**의 경우 **한계기업 상황**이 더욱 **악화될 가능성**

-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제조업 부문은 업황이 호조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, **내수 중심의 서비스업**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업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
- 또한 **중소서비스업** 부문은 금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**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져 새로운 외부 충격 발생**시 경영부진이 더욱 심화되거나 파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  - 한편,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**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**에 유의
- 따라서 **취약부문**에 대한 **모니터링**을 **지속**하고, 금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된 **취약기업**들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**선별적 지원**을 **강화**하는 등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

# I. 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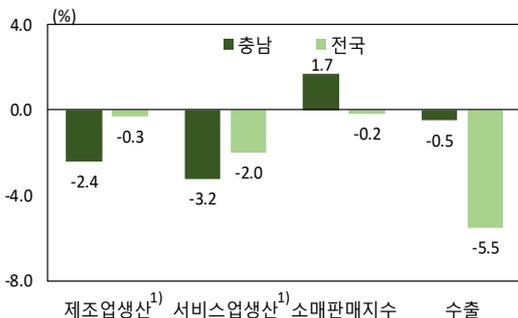
□ **지난해 충남지역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**

○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국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

□ **충남지역은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고 주요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업종별로 고르게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 경제주체로서 **기업부문의 역할이 매우 큼*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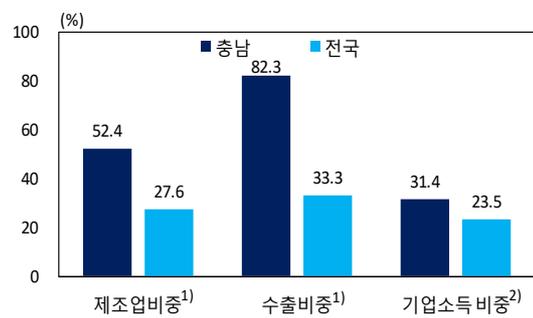
○ 부가가치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(52.4%)과 GRDP 대비 수출 비중(82.3%)이 큰 편이며, GRNI 대비 기업소득 비중(31.4%)도 전국보다 큼

2020년 중 충남 및 전국 경제상황



주: 광업제조업동향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준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충남지역 경제 구조



주: 1) 2019년 기준  
2) 비금융법인 총본원소득/GRNI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□ **코로나19 위기가 지역 기업에 미친 충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아직 많지 않은 가운데 **이용가능한 통계**를 **활용**하여 **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을 가늠**해 보고자 함**

○ 동 보고서에서는 KIS-Value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중기업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\*

\* 아울러 외감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중소기업을 보다 넓게 포괄하고 있는 비외감기업 경영상황도 분석하여 참고로 제시

⇒ **충남지역 기업 현황 및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를 전후로 기업 경영지표를 비교 분석한 후,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제시**

## II.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의 기업 경영상황

- 2020년 기준 충남지역 기업수는 1,100개, 매출액은 151조원으로 각각 전국의 4.2%, 5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기업수는 중소기업(79.9%)이 대부분이며 매출액은 대기업(81.8%)과 제조업(89.7%)에 집중
- 충남지역 기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, 특히 지역 주력 제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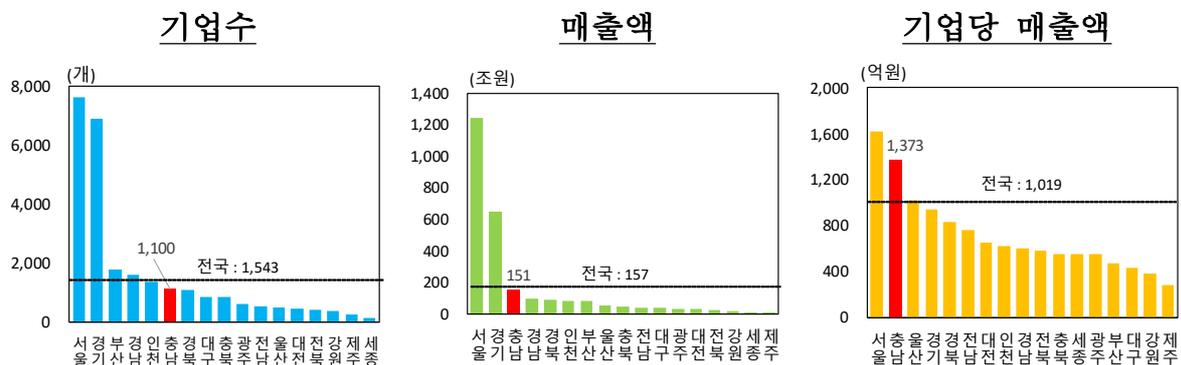
※ 본 보고서에 제시된 충남 및 전국의 기업경영분석 관련 통계는 NICE평가정보 KIS-Value에 수록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. 기업의 지역 구분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 생산시설이 충남에 위치한 일부 대기업은 역내 생산비중을 고려하여 조정(<참고 1> 「충남 기업 경영상황 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」 참조)

### 1 충남지역 외부감사대상 기업 현황

- **충남지역의 외부감사대상 기업**(이하 “기업”)은 2020년 말 현재 **기업수 1,100개, 매출액 151조원**으로 각각 전국의 4.2%, 5.7%를 차지\*

\* 충남지역 지역내총생산(GRDP, 명목 기준)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6.0%

- 충남지역 기업수 및 매출액은 전국 17개 광역시·도(1,543개, 157조원)를 소폭 하회
  - **기업수는 전국 6위**로 광역시·도 중 많은 편이며, **매출액도 서울,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큼**(3위)
- **기업당 매출액**은 1,373억원으로 전국 평균(1,019억원)을 큰 폭 상회하며, 전국에서 **서울 다음으로 가장 큼**(17개 시·도 중 2위)



주: 1)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



## 2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주요 경영지표 분석\*

\* 주요 경영지표(성장성: 매출액, 수익성: 매출액영업이익률, 안정성: 부채비율)에 대해 코로나19 이전(2019년) 대비 이후(2020년)를 비교 분석

### (기업부문 전체: 주요 경영지표 크게 악화)

□ **코로나19 충격**의 영향으로 **2020년 충남지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**는 코로나19 이전(2019년)에 비해 **크게 악화**

- 매출액은 2019년 163조원에서 2020년 151조원으로 대폭(-7.1%) 감소
  - 지난해 충남지역 기업의 **매출 감소폭**은 **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**(‘09년 -7.3%)과 비슷

-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수는 전체 기업의 절반을 상회(51.1%)

- 매출액영업이익률(영업이익/매출액, 이하 영업이익률)은 2019년 3.6%에서 2020년 3.3%로 하락

- 영업적자기업 비중 및 한계기업\* 비중은 각각 1.1%p(24.0%→25.1%), 1.0%p(11.7%→12.7%) 증가

\* 이자보상비율(영업이익/이자비용)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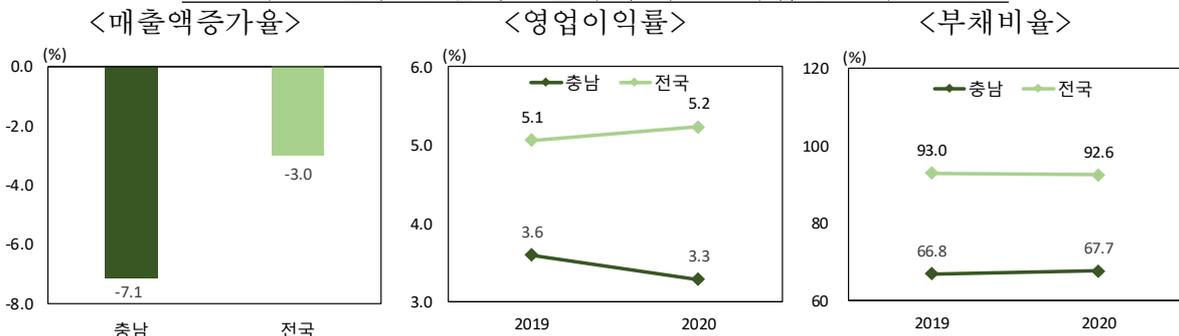
- 부채비율(부채/자기자본)은 2019년 66.8%에서 2020년 67.7%로 상승

□ **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의 경영지표 악화 정도**는 **다른 지역보다 컸던 것**으로 나타남

- 2020년 중 전국 기업의 매출액 감소폭(-3.0%)은 충남지역 감소폭(-7.3%)의 절반을 하회

- 전국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(‘19년 5.1% → `20년 5.2%)과 부채비율(93.0% → 92.6%)은 코로나19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### 코로나19 전후 충남 및 전국의 주요 기업경영지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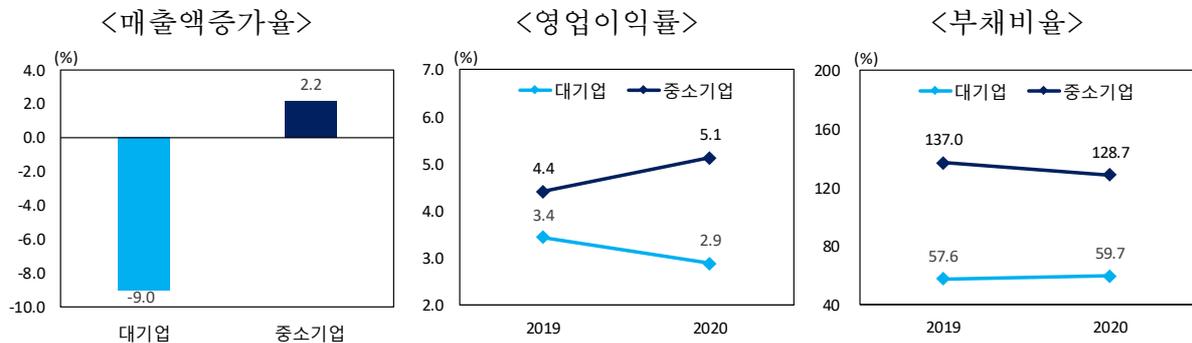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KIS-Value

## (기업규모별: 대기업의 경영지표가 크게 악화)

- 기업규모별로 보면, **충남지역 기업 매출의 절대적 비중(81.8%)**을 점하고 있는 **대기업**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여타 **경영지표도 악화**
  - 대기업은 매출액이 큰 폭 감소(-9.0%)한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하락(`19년 3.4% → `20년 2.9%)하고 부채비율은 상승(57.6% → 59.7%)
  -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증가(+2.2%)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(4.4% → 5.1%)하였으며 부채비율은 하락(137.0% → 128.7%)

### 대기업·중소기업 경영상황 비교



자료: KIS-Value

- 전국의 경우도 2020년 중 대기업의 경영지표가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악화되었으며, **충남지역 대기업 경영지표는 전국보다 부진**
  - 전국 대기업은 매출액이 감소(-3.9%)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동일하고 부채비율은 소폭 상승(+1.2%p)
  -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소폭 감소(-0.1%)하는 데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이 상승(+0.7%p)하고 부채비율은 하락(-6.7%p)

###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별 경영상황 변화

	충남		전국	
	대기업	중소기업	대기업	중소기업
· 매출액 <sup>1)</sup>	-9.0	+2.2	-3.9	-0.1
· 영업이익률 <sup>2)</sup>	-0.5	+0.7	0.0	+0.7
· 부채비율 <sup>2)</sup>	+2.2	-8.4	+1.2	-6.7

주: 1)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률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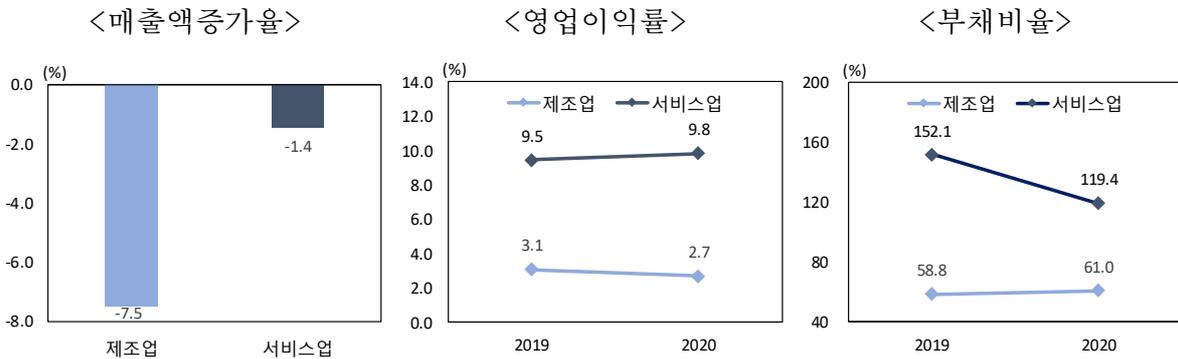
2) 2019년 비율 대비 2020년 비율 변동분(%p)

자료: KIS-Value

**(업종별: 제조업의 경영지표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)**

- 업종별로 보면, **충남지역 기업 전체매출의 대부분(89.7%)**을 차지하고 있는 **제조업체**에서 **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**
  - 제조업은 매출액이 큰 폭 감소(-7.5%)한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하락('19년 3.1% → '20년 2.7%)하고 부채비율은 상승(58.8% → 61.0%)
  -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소폭 감소(-1.4%)하였으나, 영업이익률이 상승(9.5% → 9.8%)하고 부채비율은 큰 폭 하락(152.1% → 119.4%)

**업종별 경영상황 비교**



자료: KIS-Value

- 전국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경영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으며, **충남지역 제조업 경영지표는 전국보다 부진**
  - 전국 제조업은 매출액이 감소(-3.3%)하고 부채비율이 상승(+0.9%p)하였으나, 영업이익률은 상승(+0.2%p)
  -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감소(-2.3%)하였으나,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동일하고,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(-1.9%p)

**코로나19 이후 업종별 경영상황 변화**

	충남		전국	
	제조업	서비스업	제조업	서비스업
· 매출액 <sup>1)</sup>	-7.5	-1.4	-3.3	-2.3
· 영업이익률 <sup>2)</sup>	-0.4	+0.4	+0.2	0.0
· 부채비율 <sup>2)</sup>	+2.2	-32.7	+0.9	-1.9

주: 1)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률(%)  
 2) 2019년 비율 대비 2020년 비율 변동분(%p)

자료: KIS-Value

### III.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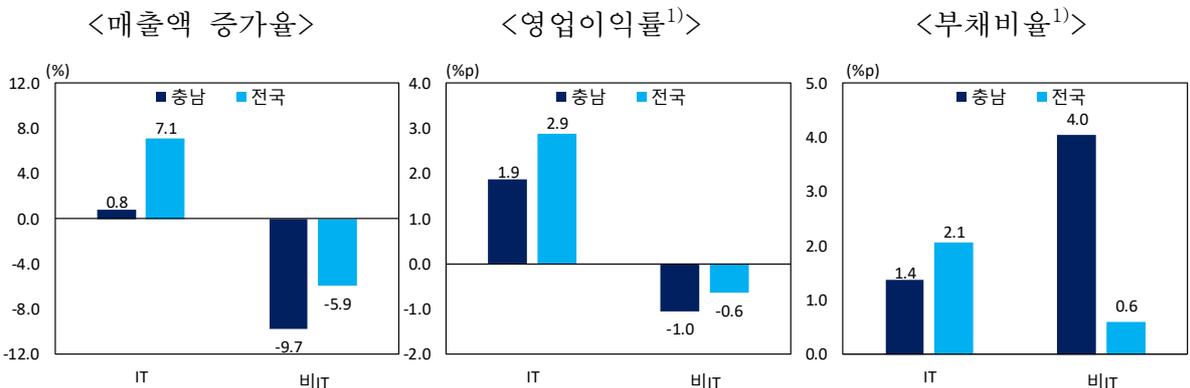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위기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은 주력산업 내 비IT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
- 서비스업은 비대면서비스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나,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은 매출이 급감
-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난 수혜업종(식료품, 의료용 물질·의약품, 기계·장비, 반도체 소재 등)과 수요가 줄어든 피해업종(숙박음식점업, 운수업, 자동차 등) 간 매출 및 수익 상황이 엇갈리며 양극화
- 기업규모·업종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영지표가 악화된 가운데,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더 큰 폭 증가

#### 1 주력산업: 비IT 제조업 크게 악화

\* 충남지역 주력산업은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자동차, 철강, 석유정제·화학으로, 주력산업이 전체지역 생산의 38.3%, 전체 제조업 생산의 62.4%를 차지(2019년 부가가치 기준)

- 코로나19 이후 **충남지역 기업의 매출 감소 및 영업이익률 하락은 주력산업 내 비IT 제조업종이 주도**
  - IT부문(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)은 매출이 소폭(+0.8%)이나마 증가를 유지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(+1.9%p)
  - 반면, 비IT부문(석유정제, 석유화학, 자동차, 철강 등)은 매출이 대폭(-9.7%) 감소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락(-1.0%p)

#### 제조업 부문별 경영상황



주: 1) 2019년 비율 대비 2020년 비율 변동분(%p)  
 자료: KIS-Value

□ **IT부문**(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)은 **디스플레이**의 매출이 **전년 수준**을 유지한 가운데, **반도체**는 **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**

- 지역 주력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\*하는 **디스플레이**는 코로나19 이후 IT부문 전반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**지역 특수요인**에 주로 기인하여 매출이 전년대비 0.1% 증가에 그침

\*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지역 IT부문 내 비중(`20년 매출액 기준)이 92.5%에 달하고, 지역 주력산업 매출의 29.9%, 제조업 전체매출의 21.8%를 차지

— 지역 소재 최대 IT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**주력 품목**을 **LCD에서** 고부가가치 제품인 **OLED로 변경**함에 따라 LCD 생산이 감소\*

\* 삼성디스플레이의 사업전환(생산능력(만장/월)) : 19년 43.3 → 20년 38.9 → 21년 9.4°

— 전국의 디스플레이 매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·온라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4.8% 증가

- 한편 **반도체**는 매출이 13.5% 증가하여 전국 평균(+9.8%)을 크게 상회하는 **호조**를 보였으나, **비중\***이 **작아** 매출 증가요인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

\* 충남 반도체산업은 지역 IT부문 내 비중(`20년 매출액 기준)이 7.0%에 불과하며, 지역 제조업 내 비중은 1.6%로 전국 평균(14.6%)보다 크게 낮은 편

□ **비IT부문**(석유정제, 석유화학, 자동차, 철강 등)은 코로나19 이후 IT부문과는 대조적으로 **업황 전반이 급격히 악화**되면서 **석유정제·석유화학**을 중심으로 **큰 폭으로 감소**

- **석유정제**(-32.8%)와 **석유화학**(-26.9%)은 코로나19 이후 **유가 하락\***이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**가격요인**에 주로 기인하여 **매출이 급감**

\* 유가(두바이)는 2019년 중 연평균 배럴당 63.2달러에서 2020년 중 42.3달러로 하락하였으며,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파라자일렌 가격도 같은 기간 톤 당 899.4달러에서 578.8달러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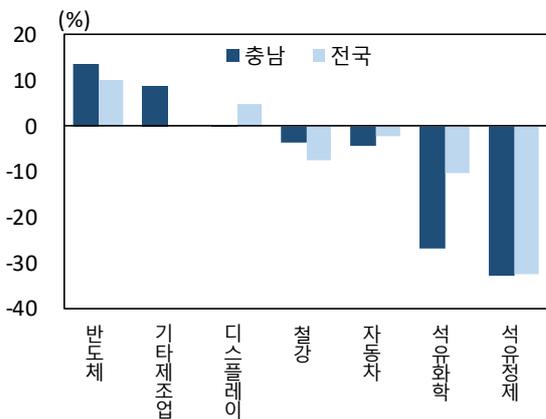
- 지역 주력산업 및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**자동차와 철강도 매출이 각각 4.4%, 3.5% 감소**

\* `20년 매출액증가율

	충남	전국
▪석유정제	-32.8%(11.7%)	-32.5%( 5.8%)
▪석유화학	-26.9%( 9.6%)	-8.9%(11.1%)
▪자동차	-4.4%(10.7%)	-2.4%(15.6%)
▪철강	-3.5%(17.4%)	-7.4%( 8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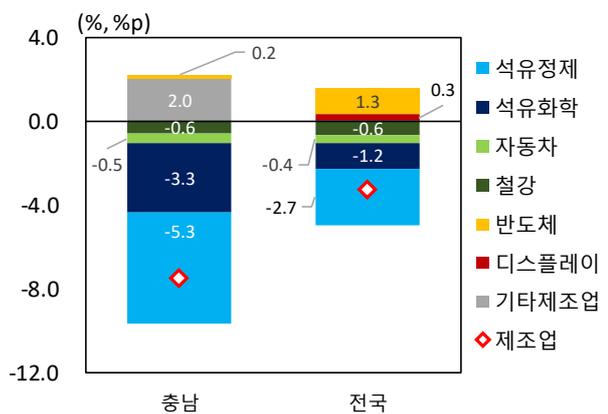
주: 1) ( ) 내는 제조업 내 비중

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기여도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## 2 서비스업: 대면서비스업 크게 부진

- **충남지역 서비스업**을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업\*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, **비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한 데 비해** 감염병에 취약한 **대면서비스는 매출이 급감**

\* 대면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, 운수업, 교육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며 비대면서비스업은 그 외 서비스업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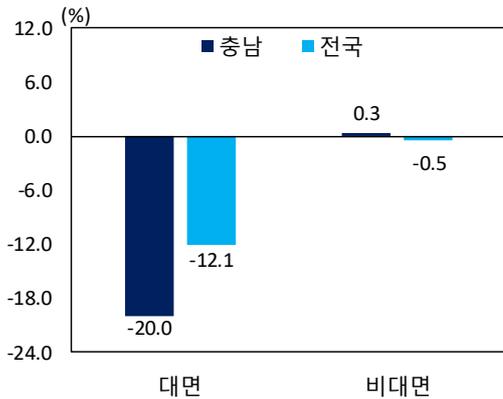
- 대면서비스업은 2020년 매출이 코로나 이전(2019년) 대비 20.0% 감소(전국은 -12.1%)

— 특히 숙박음식점업(-54.3%), 운수업(-18.5%)의 매출이 큰 폭 감소

— 다만 예술·스포츠·여가서비스업(+17.6%)은 골프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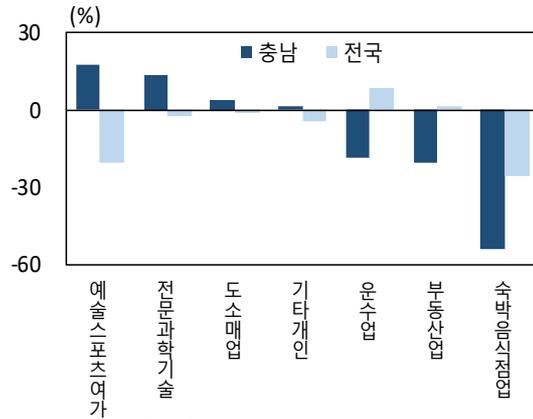
- 비대면서비스업은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(+0.3% vs. 전국 -0.5%)하고 영업이익률도 소폭 상승(+0.4%p vs. 전국 +0.2%p)
-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(+13.4%)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, 비중이 큰 도소매업(+3.9%)도 매출 증가폭이 전국(-1.0%)을 웃도는 등 양호한 모습

서비스업 부문별 매출액 증가율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서비스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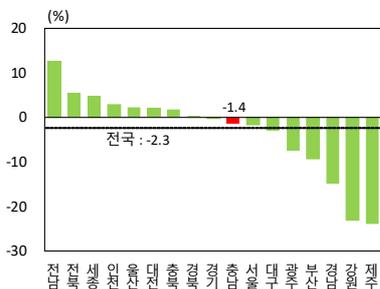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□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서비스업 매출 감소폭(-1.4%)이 전국(-2.3%)보다 작았던 것은 **대면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낮은**(7% vs. 전국: 14%) **구조적 특성**에 기인

\* 충남 서비스업은 영업이익률도 소폭 상승(+0.4%p)하여 전국(+0.002%p)보다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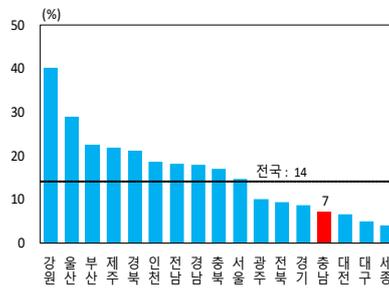
- 충남지역 대면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으며,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했던 운수업(3.3% vs. 전국 10.7%), 숙박음식점업(1.1% vs. 전국 2.0%)의 비중이 크게 낮은 편

지역별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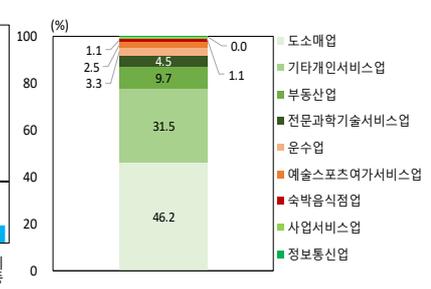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대면서비스업 비중 비교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서비스업 세부업종별 비중



주: 1) 2020년 기준  
2) 초록색 계열은 비대면서비스업, 붉은 계열은 대면서비스업  
자료: KIS-Value

3

중소기업: 코로나19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간 양극화

□ **충남지역 중소기업**은 코로나19 이후 **매출이 소폭 증가**(+2.2% vs. 전국: -0.1%)하였으나, **코로나 특수 수혜업종**과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수요가 줄어든 **피해업종** 간 매출 및 수익 상황이 엇갈리며 **양극화**

○ 수혜업종\*은 매출이 13.6%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1.0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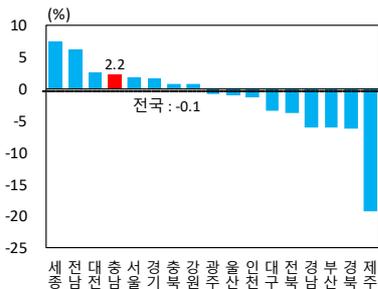
\* 식료품(+11.3%), 의료용 물질·의약품(+13.7%), 기계·장비(+17.5%), 의료·정밀·광학·시계(+3.1%), 반도체 소재(+9.8%) 등으로 매출액 비중은 27.7%  
(참고: 서비스업 중에서는 배달서비스, 게임,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포함된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이 대표적인 수혜업종이지만 충남에는 위치하지 않음)

○ 반면, 피해업종\*은 매출이 7.1%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0.1%p 하락

\* 섬유제품(-13.9%), 의복·액세서리(-44.6%), 자동차(-4.3%), 운수업(-18.7%), 숙박음식점업(-21.9%) 등으로 매출액 비중은 9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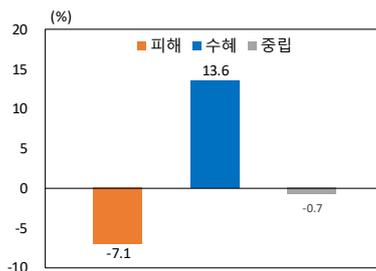
\*\* 중립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은 62.5%으로, 매출액은 0.8%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0.6%p 상승

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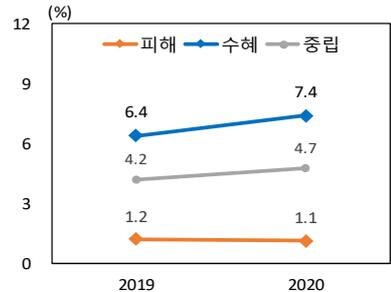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중소기업 코로나 수혜·피해업종 매출액 증가율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중소기업 코로나 수혜·피해업종 영업이익률



자료: KIS-Value

□ 지역 중소기업 내 비중이 높은 **기계·장비, 반도체 소재, 의료용 제품, 식료품** 등이 **포스트 코로나 특수**의 수혜를 받으며 **업황이 호조**를 보임

○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호조로 국내 반도체 생산이 증가\*함에 따라 지역내 중소형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업체\*\*들의 매출도 동반하여 크게 증가

\* 2020년 중 전국 반도체 생산은 전년대비 22.7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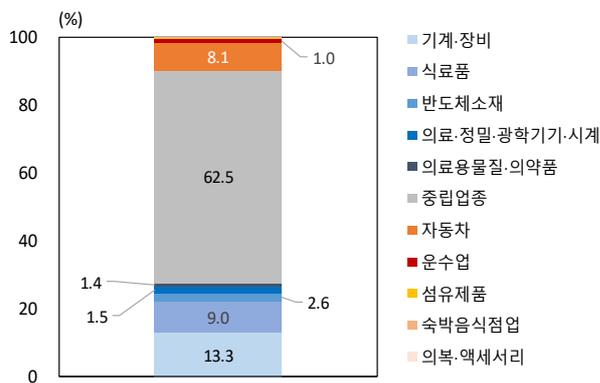
\*\*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대기업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과 주로 거래하며, 이들의 생산변동에 따라 매출이 크게 변동

- 반도체 기계를 포함한 기계·장비와 반도체 소재\* 업체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7.5%, 9.8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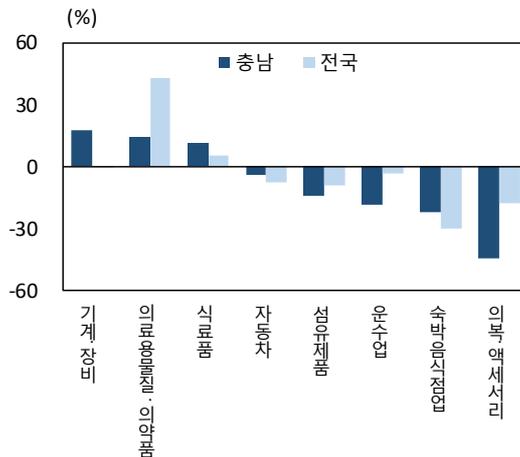
\* 화학업종 중소기업 중 약 41%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업체에 해당. 다만 화학 전체는 화장품 등 일반화학제품 부진으로 0.2% 감소

- 의료용 물질·의약품(+13.7%)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·시계(+3.1%), 식료품(+11.3%) 생산 업체 등도 코로나19 특수의 영향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

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비중



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



주: 1) 2020년 기준  
 2) 주황색 계열은 수혜업종, 푸른색 계열은 피해업종

자료: KIS-Value

- 반면, **대면서비스업 업종 전반**과 제조업 중 **자동차, 섬유, 의복제품** 등은 코로나19 이후 **경기 위축**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**경영상황**이 상대적으로 **부진**

- 대면서비스업\* 중 숙박음식점업(-21.9%), 운수업(-18.7%)의 매출이 큰 폭 감소

\* 대면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은 9.5% 감소하였으나,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중소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7%로 작음

- 한편,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(-4.3%), 섬유(-13.9%), 의복제품(-44.6%)의 매출이 감소

## 4

## 한계기업: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비중 큰 폭 증가

※ 본 보고서에는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비율(영업이익/이자비용)이 3년 연속 1미만을 지속한 기업으로 규정. 본 보고서의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분석기업 범위의 차이 등으로 당행 발간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와 다를 수 있음

## (한계기업 현황)

□ 2020년 기준 **충남지역 한계기업** 수는 140개로 **충남지역 전체 기업**의 **12.7%**를 차지\*

\* 충남지역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전국(14.0%)보다는 다소 낮음

○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18개, 대기업이 22개로 지역 중소기업의 13.4%, 대기업의 10.0%가 한계기업

○ 업종별로는 제조업 84개, 서비스업 42개, 건설업 등 기타 업종 14개

— 각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(21.3%), 제조업(10.8%), 건설업 등(8.3%)의 순으로 여타 업종에 비해 서비스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매우 높음

□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**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**(이하 중소서비스업)에서 **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음**

○ 중소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4.1%로 중소기업 전체 한계기업 비중(13.4%)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

기업규모별·업종별 한계기업 현황

(개, %)

	제조업	서비스업	건설업 등 기타	계
대기업	17(10.2)	0( 0.0)	5(15.6)	22(10.0)
중소기업	67(10.9)	42(24.1)	9( 9.9)	118(13.4)
계	84(10.8)	42(21.3)	14(11.4)	140(12.7)

주: 1) ( ) 안은 전체 기업 내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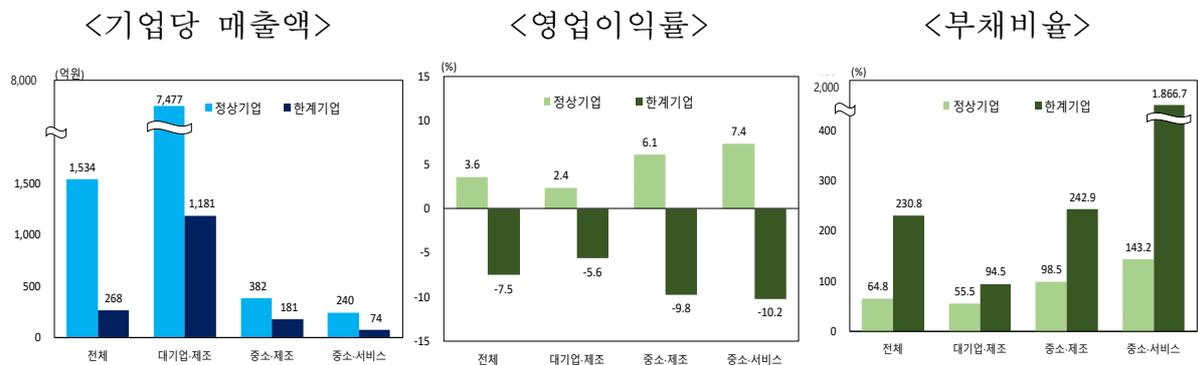
□ 2020년 기준 충남지역 한계기업의 경영상황을 살펴보면, **한계기업의 경영상황**이 정상기업에 비해 **매우 부진**

- 한계기업은 기업당 매출액(268억원)이 정상기업(1,534억원)의 1/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업규모가 영세
- 영업이익이 큰 폭의 적자(-7.5%)를 기록하고, 부채비율도 230.8%로 정상기업의 약 4배 수준

□ 특히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아 **취약부문**으로 여겨지는 **중소서비스업** 부문의 경우 **경영상황이 더욱 열악**

- 여타 부문에 비해 경영상황이 더 부진한 데다, 부문 내 정상기업-한계기업 간 경영상황 차별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

### 한계기업·정상기업 간 경영상황 비교<sup>1)</sup>



주: 1) 2020년 기준  
 자료: KIS-Value

### (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계기업 상황 변화)

□ **코로나19 위기 이후** 충남지역 **한계기업** 수는 감소('19년 147개 → '20년 140개)하였으나,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**비중은 소폭 확대**(11.7% → 12.7%)

- **한계기업 수가 감소**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**폐업**하거나 **비외감기업**으로 **전환**된 기업\*이 **늘어났기 때문**

\* 충남 기업수는 2019년 1,253개에서 폐업 및 비외감기업으로의 전환으로 2020년 1,100개로 감소

○ 한계기업 비중은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(+ 1.5%p)에서, 업종별로는 서비스업(+ 3.9%p)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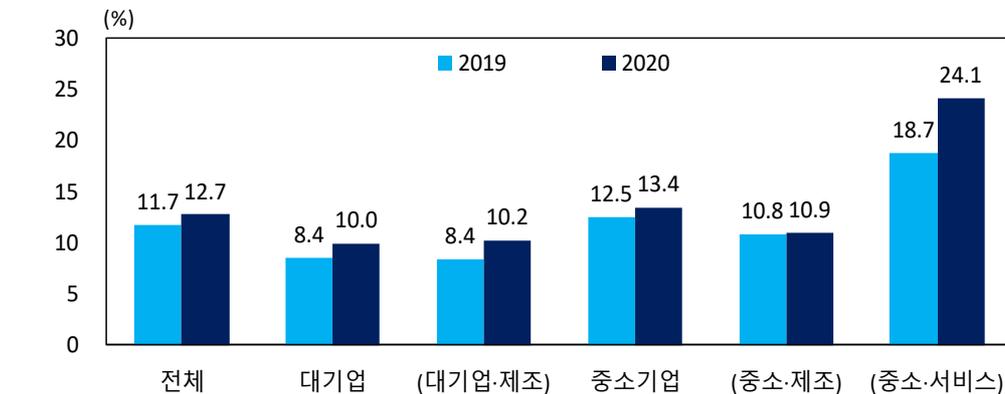
— 중소기업(+ 1.0%p)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 2020년 중 상당수 한계기업이 폐업\*한 데 기인

\* 2019년 한계기업이었던 중소기업(147개) 중 21.8%(32개)가 폐업하거나 비외감 기업으로 전환

□ 기업규모별·업종별로 세분해 보면, 가장 취약한 부문인 중소·서비스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(+ 5.4%p)

— 전국도 중소·서비스업 부문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(+ 1.9%p)하였으나, 충남지역의 상승폭은 전국 상승폭을 크게 상회

부문별 충남 한계기업 비중



자료: KIS-Value

□ 코로나19 위기 이후 충남지역 한계기업의 경영상황은 부진이 더욱 심화

○ 한계기업은 기업당 매출액이 대폭 감소(-11.1%)한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폭 하락(-2.0%p)하고 부채비율은 큰 폭 상승(+ 22.0%p)

\*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전체 기업 경영상황:  
매출액 증가율 -7.1%, 영업이익률 -0.3%p, 부채비율 + 0.9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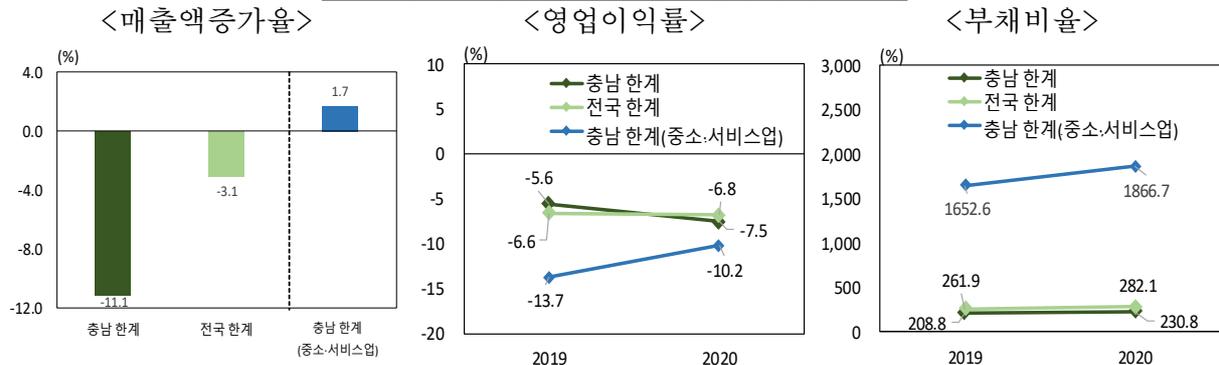
○ 충남지역 한계기업의 부진 정도는 전국에 비해서도 컸음

— 전국 한계기업은 매출액이 소폭 감소(-3.1%)하였으며,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(-0.2%p)하고 부채비율은 상승(+ 20.2%p)

○ **취약부문**인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소폭 증가(+1.7%)하고 영업이익률도 다소 개선(+3.5%p)되었으나,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(1,652.6% → 1,866.7%, +214.1%p)

— **영업이익률 적자폭**(-10.2%)이 여전히 매우 큰 데다, 이미 심각한 차입금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안정성이 저하

###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경영상황 변화



자료: KIS-Value

## 충남지역 비외감기업 경영상황 점검

※ 본 보고서 본문에서는 중대형 기업 비중이 높은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, 동 참고에서는 비교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포괄범위가 더 넓은 비외감기업에 대해 분석. 비외감기업은 자산, 매출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 기준보다 작은 소기업으로, NICE평가정보의 데이터\*(전국 99,938개, 충남 4,554개)를 활용

\* 동 데이터는 기업이 신용등급평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집 후 가공한 것으로, 비외감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금융접근성이 높은 비교적 양호한 기업으로의 편이가 있을 가능성에 유의

□ 충남지역 비외감기업 경영상황을 보면, 외감기업보다 기업규모가 영세하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사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편

○ 2020년 기준 비외감기업 기업당 매출액은 33.9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3.4%, 부채비율은 126.0%

\* 외감기업 기업당 매출액: 1,373억원, 영업이익률: 3.3%, 부채비율: 67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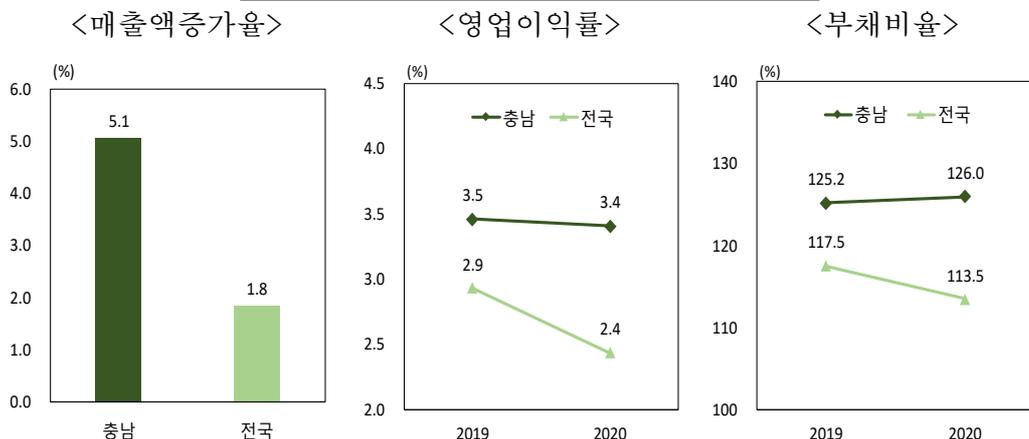
○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제조업(50.2%), 서비스업(25.2%), 건설업(17.8%) 순으로 외감기업 보다는 비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높음

□ 코로나19 위기 이후 충남지역 비외감기업 경영상황은 외감기업에 비해 양호한 모습

○ 외감기업과는 달리 2020년 중 매출액이 증가(+5.1%)한 가운데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

○ 전국과 비교할 때에도 충남지역 비외감기업의 경영상황은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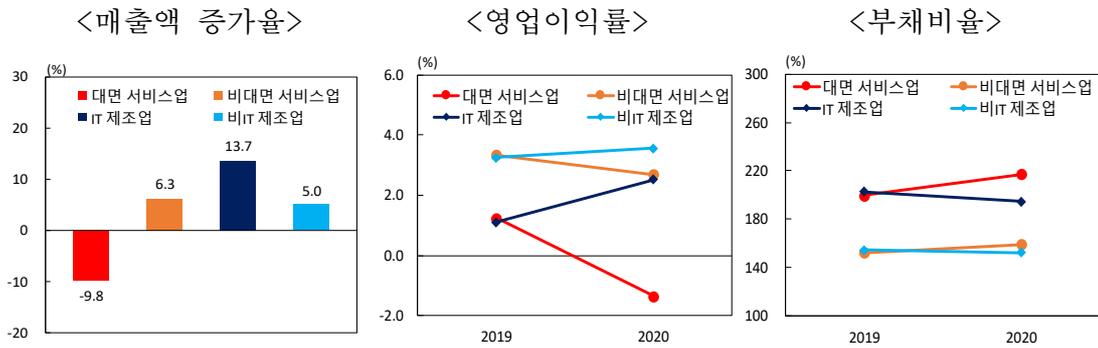
### 충남지역 및 전국 비외감기업 경영상황



자료: NICE평가정보

- 비외감기업 경영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, IT제조업은 양호하였으나, 대면 서비스업은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
  - IT제조업은 매출액이 2020년 중 증가(+13.7%)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(+1.3%p) 하였으며 부채비율은 하락(-7.9%p)
  - 한편, 대면서비스업은 매출액이 큰 폭 감소(-9.8%)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(-2.6%p)되었으며 부채비율도 상당폭 상승(+17.5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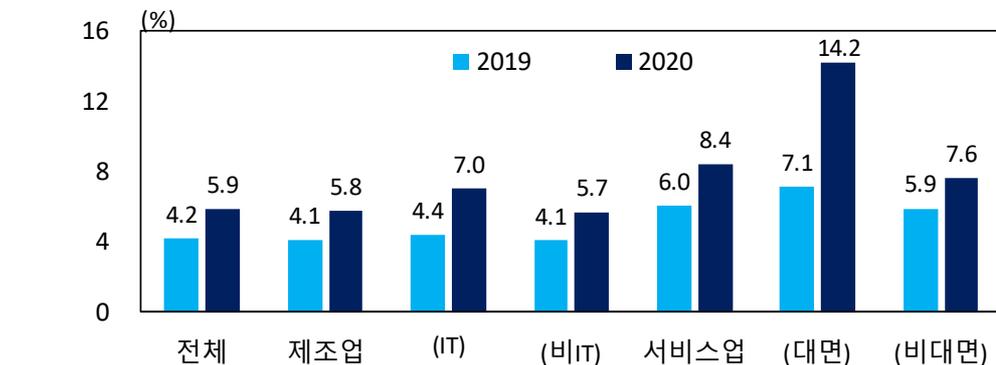
### 비외감기업 부문별 경영상황



자료: NICE평가정보

- 코로나19 위기 이후 충남지역 비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수는 증가(190개 → 268개)하였으며,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(4.2% → 5.9%)
  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 증가
    - 특히 대면서비스업 부문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('19년 7.1% → '20년 14.2%)

### 비외감기업 부문별 한계기업 비중 변동



자료: NICE평가정보

## IV. 종합평가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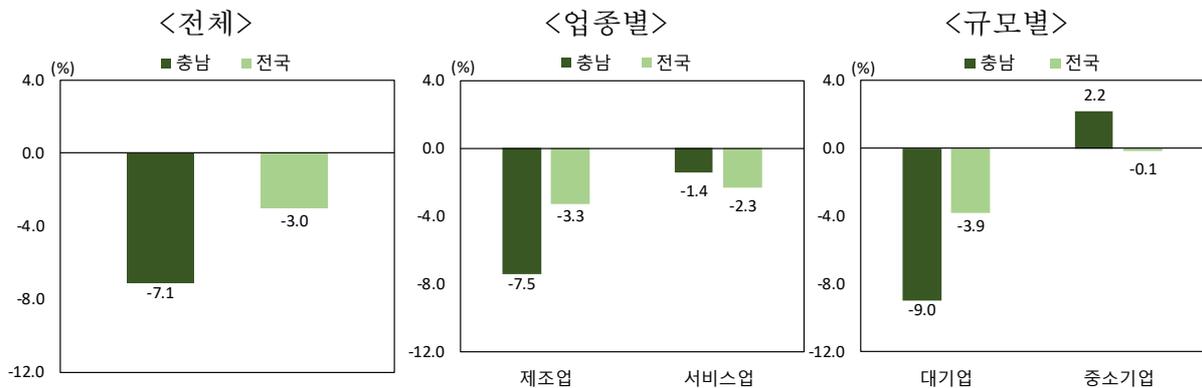
① **코로나19 위기의 충격으로 충남지역 기업은 주요 경영지표가 모두 크게 악화되었으며, 전국에 비해서도 크게 부진**

- 충남지역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전국에 비해 부진하였던 것은 지역 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**대기업**과 **제조업**의 **경영상황**이 상대적으로 **크게 악화**된 데 기인

— 코로나19 이후 충남 대기업과 제조업의 매출액 감소폭(-7.5%, -9.0%)은 전국 평균 감소폭(-3.9%, -3.3%)의 2배를 상회

- 특히 주력산업 가운데 **비IT부문 제조업**(석유화학·정제, 자동차, 철강)에 속한 **일부 대기업**의 **경영상황 악화**가 지역 전체 기업부문의 경영상황 부진을 주도하였음

코로나19 이후 매출액 증가율 비교



주: 2020년 기준  
자료: KIS-Value

②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변화를 업종별·기업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기업 경영상황 악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

- **서비스업**은 매출이 전국과 비슷하게 소폭 감소하였으나, **대면서비스업**의 경우 **매출이 급감**하며 **감염병 위기**에 매우 **취약**한 모습을 드러냄
- **중소기업**은 전체 기업 매출이 소폭 증가하고 수익성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포스트 **코로나 특수 수혜**를 받은 **업종**과 전반적 경기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**피해업종 간 경영상황이 차별화**

- 식료품, 의료용 물질·의약품, 기계·장비, 반도체 소재 등이 코로나 특수로 경영상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, 숙박음식점업, 운수업 등 대면서비스업과 주력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부진한 모습

○ 한편, 한계기업은 업종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비중이 상승하였으며, 경영지표도 더욱 악화

- 특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부문은 한계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취약성이 심화

③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대기업·제조업이 주도하는 충남 기업부문 전체 경영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

○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경제봉쇄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던 수출이 금년 들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충남지역 기업 업황도 개선

- 2020년 중 0.5% 감소했던 수출('20년 상반기 -4.3%, 하반기 +3.1%)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26.9% 증가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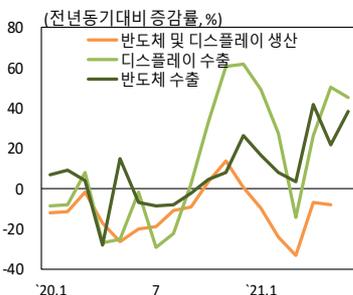
\*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높은 증가율

○ 향후에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의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

-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양호한 성과를 지속하고, 디스플레이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OLED 수출이 확대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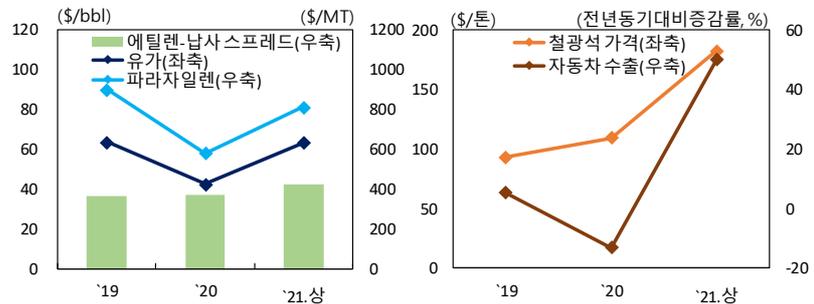
- 지난해 지역 기업 경영상황 부진을 주도했던 석유정제·화학, 철강 업종도 글로벌 수요회복으로 원유,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

IT 생산 및 수출


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유가 및 석유화학제품 가격, 철광석 가격 및 자동차 수출



자료: 한국석유화학협회

자료: 스틸데일리, 한국무역협회

- ④ 다만 기업부문 전체 경영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**코로나19 전개 상황**에 따라서는 대면서비스업 등 **코로나 피해업종**의 **경영상황 부진**이 지속되고 취약부문인 **중소서비스업**의 경우 **한계기업 상황**이 더욱 **악화될 가능성**
-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제조업 부문은 업황이 호조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, **내수 중심**의 **서비스업**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업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
  - 또한 **중소서비스업** 부문은 금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**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져 새로운 외부 충격 발생**시 경영부진이 더욱 심화되거나 파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    - － 한편,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**소규모 영세 자영업자**의 **경영상황**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에 유의
  - 따라서 **취약부문**에 대한 **모니터링**을 **지속**하고, 금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된 **취약기업**들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**선별적 지원**을 **강화**하는 등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

<참고 1>

### 기업 경영상황 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

□ 이용자료 : KIS-Value(NICE평가정보의 기업DB 시스템)를 통해 입수한 기업 재무제표  
(2021.05.31일 기준)

□ 포괄범위 : 외부감사대상\* 법인(전국 26,223개, 충남 1,100개)

\*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은 전년 말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특정 기준#에 2개 이상 해당되는 회사로 규정

# ① 전년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, ② 전년도 부채총액 70억원 이상, ③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, ④ 전년도 종업원 100명 이상

○ 분석대상에서 ‘금융 및 보험업’을 제외하였으며, 기업의 지역 구분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대기업\*은 지역별 생산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

\* 삼성디스플레이, 현대제철, KG동부제철, 삼성SDI의 본사 소재지는 각각 경기, 인천, 서울, 경기이지만, 주요 생산시설이 충남에 위치하여 분석대상에 포함

□ 주요 기업통계간 비교

○ 주요 기업통계들은 포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, 중소기업기본통계의 포괄범위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넓고 기업경영분석은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, KIS-Value는 외감기업만을 대상으로 함

**주요 기업통계 비교(2018년<sup>1)</sup> 기준)**

	중소기업기본통계	기업경영분석	KIS-VALUE
기업 수(만개)	664.4	69.3	3.2
대기업	0.5(5,062개)	0.6(6,472개)	0.5(5,012개)
중소기업	663.9	68.6	2.7
(중기업)	9.8	-	-
(소기업)	654.1	-	-
매출액(조원)	5,491	4,152	3,234
대기업	2,828	2,444	2,627
중소기업	2,663	1,707	606
(중기업)	1,177	-	-
(소기업)	565	-	-
대상 기업	전체	법인세 신고기업 중 비금융 영리법인기업	외감기업
기초 자료	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	법인세 신고자료	공시 재무제표
업종	모두 포함	임업, 수도업, 금융 및 보험업, 연구개발업, 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복지행정, 초중고등 교육기관,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, 협회단체,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	모두 포함 <sup>2)</sup>
비외감기업	포함	포함	제외

주: 1) 중소기업기본통계의 가장 최근 통계 기준

2) ‘금융 및 보험업’은 데이터 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, 본고에서는 제외하고 분석

<참고 2>

### 중소기업 구분 기준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의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중소기업으로 분류\*

\* KIS-Value 데이터도 동 기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

-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(규모기준) 업종별 규모기준(3년 평균 매출액 기준)과 상한기준(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)을 모두 충족해야 함

#### 주요 업종의 업종별 규모기준

업종	중소기업	소기업	
제조업	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	1,500억원	120억원 이하
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이하	80억원 이하
	식료품 제조업	1,0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800억원 이하	80억원 이하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120억원 이하
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80억원 이하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10억원 이하
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600억원 이하	10억원 이하
서비스업	도매 및 소매업	1,000억원 이하	50억원 이하
	운수 및 창고업	800억원 이하	80억원 이하
	정보통신업		50억원 이하
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600억원 이하	30억원 이하
	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	10억원 이하
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400억원 이하	80억원 이하
	금융 및 보험업		30억원 이하
	부동산업, 임대업		10억원 이하
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			

○ (독립성 기준)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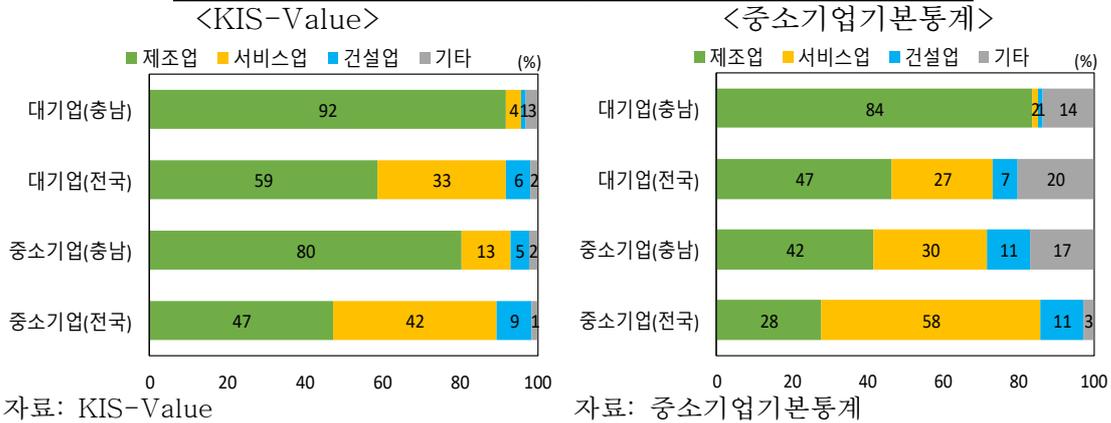
-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- ②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, 비영리법인 등 제외)이 주식 등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
-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

<참고 3>

### KIS-Value와 중소기업기본통계간 기업분포 비교

- KIS-Value 데이터는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달리 기업규모가 영세한 비외감기업을 포함하지 않기에 두 데이터 간 기업분포 차이가 발생
- 기업규모별로는,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 내 업종별 분포는 두 데이터가 서로 유사한 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KIS-Value의 제조업 비중이 중소기업기본통계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충남이 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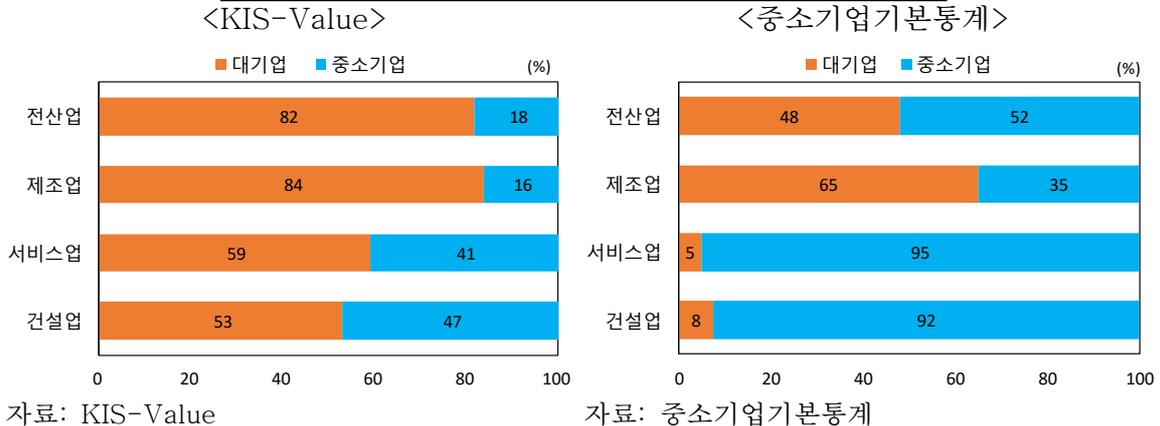
#### 충남지역 기업 기업규모별 업종 분포(2018년 매출액 기준)



- 업종별로는, KIS-Value의 대기업 비중이 모든 업종에서 중소기업기본통계보다 높은 편이며, 특히 서비스업에서 대기업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남

⇒ NICE평가정보의 비외감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시행

#### 충남지역 기업 업종별 기업분포(2018년 매출액 기준)



## <참고문헌>

- 박성경(2020), “경기지역 기업의 유동성리스크 점검 및 평가”, 한국은행
- 송단비·조재한·김한현·김인철(2021), “국내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”, 산업연구원
- 안세현·이용민(2012), “대전·충남지역 소재 중견·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추정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
- 이근건·오강현·강보민·곽윤영(2020), “코로나19 이후 미국 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”, 한국은행
- 이보미(2020), “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산업별 재무건전성 점검”, 한국금융연구원
- 한국은행(2021), “금융안정보고서(2021년 6월)”
- 한국은행(2020), “「금융안정 상황」(2020년 9월)”